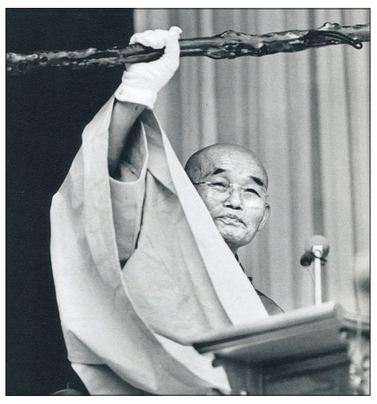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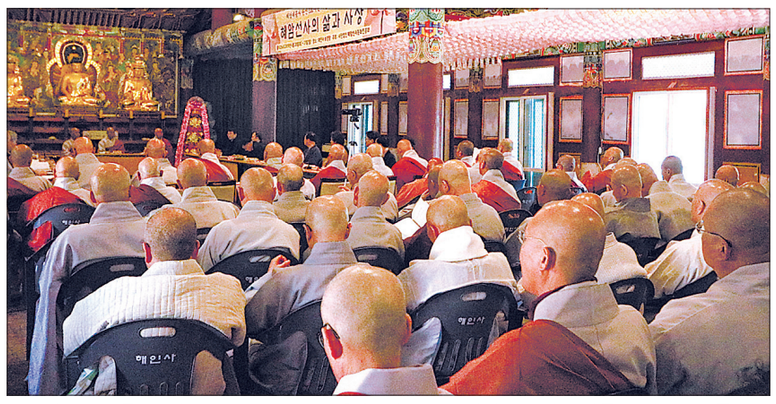
‘선지식’ 혜암 스님 수행 · 사상 망라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주관으로
4월 20~21일 제2회 학술대회

“성철 · 혜암 두 대종사 뒤 이어
전통 계승해야 할 소명 있어”
26일 상당법어집 · 진영 봉안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10대 종정 취임법회에서 혜암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4월20~21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혜암대종사 탄신 100주년기념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부하다 죽어라”라며 수행 정진을 강조했던 조계종 前 종정 혜암 스님(1920~2001)의 생애와 사상, 수행관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법)는 4월 20~21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기념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종진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혜암 스님 생전 육성법문 동영상 시청과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공부하다 죽어라- 집주 혜암대종사 상당법어집〉의 집주를 맡았던 신규탁 교수는 “이제 중국 선종의 어록을 참고해 우리 방식대로 본지풍광을 들어내야 한다”면서 “돈오돈수의 진면목을 언양한 해인총림 성철 스님과 혜암 스님 두 대종사의 뒤를 이어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 후학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혜암 스님의 수행관과 사상 등을 집중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혜암선사의 자성삼학(自性三學)의 선수행관 일고찰’을 발표한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은 용맹정진과 두타고행을 중심으로 혜암 스님의 수행관을 살폈다.

용맹정진과 두타고행이 자성삼학과 다르지 않은 점을 혜암 스님의 선수행의 특징으로 꼽은 문광 스님은 “혜암 스님의 삼학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화두참선을 용맹스럽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혜암 선사의 간화선에 대한 고찰’에서 혜암 스님의 간화선 사상과 방법론을 조명했다.

오용석 교수는 “혜암 스님은 선 자체에 가치 부여를 하고 두타행 중심의 수행 가풍을 확립했다”며 “스님이 제시한 화두 공부의 핵심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소식으로 의심해 들어가는 것이었고, 이런 화두공부법은 출재가 공통의 수행가풍을 이루며 재가자들을 적극 동참케 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혜암 선사상의 경전적 배경과 한국불교에서의 위상’을 발표한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혜암 스님의 선사상에 대한 경전적 배경을 살피고 한국불교에서 위상을 구명했다. 특히 정영식 위원은 혜암 스님이 정토사상을 설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혜암 스님은 오직 유심정토(唯心淨土)만을 주장할 뿐이며, 영가법문에서도 정토왕생을 설한 적은 없다. 이러한 점은 혜암 스님이 선승의 본분에 충실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교수는 ‘성인전(聖人傳) 이론과 한국불교의 큰스님 만들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올바른 선사의 선양에 대해 고찰했다.

박재현 교수는 “국내 불교학 분야에서는 인물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별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성인이 없는 종교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성인전 같은 인물연구방법론과 그 성과는 종교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혜암 선사를 ‘공부하다 죽어라’고 외쳤던 모범적인 선수행자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만세의 사표, 고승의 새로운 표준, 깨친 수행자의 모델로 제시할 것인지를 한국불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념 속에서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현대불교의 동향과 혜암 성관의 수행과 교화’를 발표한 오경후 前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혜암 스님은 굴곡진 근현대불교사 안에서 두타행을 통해 정법안장을 지키고자했던 수행자였다고 평했다. 오경후 前교수는 “혜암 스님은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얽혀있는 불교계의 뿌리 깊은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정법안장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진력했던 인물”이라며 “때문에 혜암은 성철과 함께 한국 근현대불교사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밝혔다.

학술대회에 앞서 입재식이 봉행됐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스승 혜암 스님의 삶과 사상이 제대로 들어나고 진면목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내년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려 한다. 앞으로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 스님은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 스승 혜암 스님의 사상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스님의 진면목이 드러나 사부대중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4월 26일 해인사 원당암서 〈공부하다 죽어라-집주 혜암 대종사 상당법어집〉 봉정식 및 김호석 화백이 그린 혜암 대종사 진영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용윤 연구관, 미술사학회 논문상 수상

기존 미술연구 방법 탈피
승려 문중 · 僧匠 관계 조명
4월 27일 한중연서 시상식



국내 최대 미술사학 단체인 (사)한국미술사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이용윤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관<사진>이 선정됐다.

한국미술사학회(회장 박정혜)는 최근 이용윤 연구관의 ‘조선후기 황악산 화승(畵僧)의 활동과 벽암문중의 조력’을 제5회 올해의 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서 열린 한국미술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이용윤 연구관의 ‘조선후기 황악산 화승(畵僧)의 활동과 벽암문중의 조력’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직지사를 중심으로 불사를 주도한 벽암문중과 이를 수행했던 승장(僧匠) 탁휘성징, 세관 간의 관계를 조명했다. 특히 불화 연구에 있어서 도상과 형식을 파악하던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넘어 불사의 숨은 조력자인 문중에 주목해 화승과의 관계를 고찰한 점은 불화 연구방법론의 외연을 넓혔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용윤 연구관은 탁휘 · 성징 스님이 꽃을 든 석가불을 주불로 하는 ‘선석사 영산회괘불도(1702)’와 ‘용문사 영산회괘불도(1705)’를 조성했으며, 이 ‘염화불’ 도상은 17세기에 벽암문중이 간행된 불서의 변상도로 표현되면서 확산됐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문중의 조력을 받던 화승은 문중에게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상적 뒷받침을 받아 새로운 형식의 불화를 제작했다는 게 이용윤 연구관의 주장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용윤 연구관은 “승려 문중과 승려 장인과의 관계를 고찰했는데 이런 부분이 학계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형식과 도상 연구가 아닌 문화사적 관점에서 불교미술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韓 전통장인 연구 단체 창립된다

전통장인연구회 5월 25일 창립학술대회

근대 佛母 보응문성 조명
정읍 약수암 관음상 분석

한국 전통장인들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창립된다.

한국전통장인연구회(회장 한봉석)는 오는 5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관단체로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가 참여한다.

‘조선말기와 근대 불교미술의 거장-보응당 문성의 삶과 예술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보응당 문성 스님의 작품임이 확인된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 등을 비롯한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 연구(최선일)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의 과학적 분석-수종과 연륜분석을 중심으로(김요정) △보응당 문성 불화의 전통성과 근대성(이승희) △보응 문성과 송광사 관음전의 일반회화 벽화(최경현)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자비 기반 인성교육서 한국어 번역됐다

혜주 스님 ‘SEE Learning’ 韓譯 출간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개발한 자비 기반 ‘사회 · 정서 · 인성 교육(Social, Emotional, Ethical Learning, 이하 SEE Learning) 프로그램’이 한국어로 번역됐다.

에모리 대학교는 4월 4일부터 3일간 SEE Learning 론칭 행사를 인도 델리 안다즈 호텔에서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에모리 대학교 SEE Learning 프로그램 한국 대표 국제 위원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혜주 스님과 연구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SEE Learning에 대해 발표하고 세계 교육학자들과 교류했다.

이번에 출판된 ‘사회 · 정서 · 인성 교육과정’은 유아 · 초등 · 중등 · 고등 교육 과정에 도입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사회 정서 발달과 더불어 집중력,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비, 외상 치유적 접근에 기반한 회복탄력성, 시스템적 사고, 윤리적 통찰 등을 키워주는 현대 사회에 매우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에모리 대학교 연구팀은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포함해 윤리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SEE Learning 프로그램의 실행과 연구를 위해 에모리 대학은 북미와 남미, 아시아, 유럽 등 여러 나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 (불교아동교육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적인 한국 파트너로서 전체 교육과정 안내와 교사 연수, 교육과정 실행, 그리고 관련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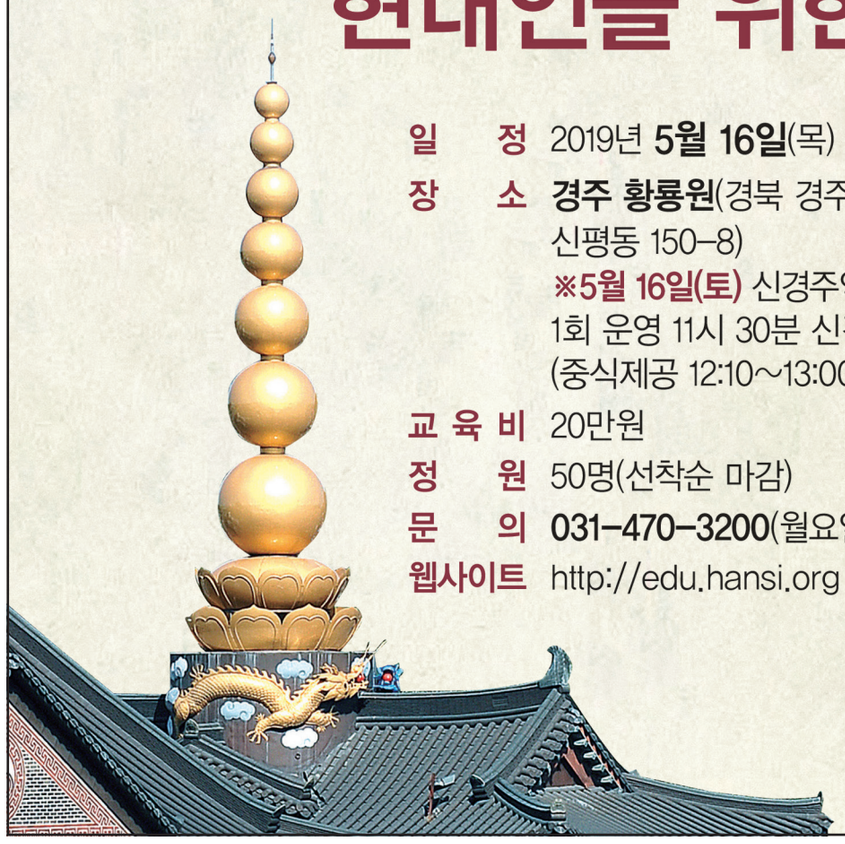
불교미술사학 제 27집 발간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지준)의 학술지 〈불교미술사학〉27집이 최근 발간됐다.

〈불교미술사학〉27집에는 △정은우(동아대)의 ‘고려시대 불교조각연구와 새로운 관점’ △최은령의 ‘서산 일락사 미타전 불상 연구’ △김자현(울산대)의 ‘15세기 왕실발원 불교변상판화’의 제작과 흐름 △이선용(한국전통문화대)의 ‘일본 교토 세이간지 소장 〈금직천불도〉의 진언 연구’ △장계수(동국대)의 ‘순천 선암사 축성전(현 장경각)의 벽화 연구’ △김지현(동국대)의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조영계획과 동계열의 석탑 고찰’ △서남영(경북대)의 ‘중국 산서성의 소형불교석굴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 논문들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신도상담과 지도방안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하는 컨텐츠
▶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